



불교용어의 표준화



이기선

사찰조형연구소
본지 논설위원

최근 들어 우리 생활 속에 인터넷이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 불교계도 전자불전(電子佛典)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웹플스테이 등 우리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도 외국인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마냥 반기고 즐거워 할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나만의 고유(固有)라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터넷이 지닌 확산력(擴散力), 시간적으로 빠르게 공간적으로 넓게 퍼지는 그 놀라운 힘 때문이다. 잃어진 그릇의 물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듯이 한 번 전파된 말은 그 오류가 밝혀져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을 수 없듯이 터전을 잘 닦아 놓아야만 한다.

바로 우리 불교용어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이들 용어의 외국어 표기이다. 우선 사람의 이름을 비롯하여 우리 역사상에 이름 높은 고승대덕의 법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어로 표준화하고 통일해야 한다. 이들 고유명사의 표기를 통일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고유명사의 표기가 표준화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혼란은 볼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 불교문화에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해인사에 소장된 고려대장경판의 명칭을 우리말로만 무엇이라 명명할 것인가를 논의하여 확정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는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우리 불교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불교 기초용어집의 간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 '한류' 열풍을 이끈 경인치는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였다. 그것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서구의 대중문화는 물론 일본의 만화까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한국문화의 강력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인기절정의 드라마 '대장금' 또한 '한류' 연기자들의 열연과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 드라마는 독특한 타이틀곡은 물론, 아름다운 한국의상과 감칠맛 나는 음식과 요리, 전통주거공간의 문화를 볼거리로 제공하기도 하려니와, 천한 신분에서 궁전의 의녀에 이르는 성공신화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월드컵 축구 등을 통해 '아시아의 자존심'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노동자들이 '코리아 드림'의 꿈을 안고 일 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나라인 반면, 내적으로는 쉬임 없이 치열한 경쟁과 승부가 펼쳐지는 역동적인 나라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장금'에서 보여주는 '조선최고의 수라간 공녀'의 상징성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최고를 갈망하는 한국인들의 꿈과 겹쳐있으며, 가치없는 집안 일로 치부되던 요리 등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격식의 진지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최고공녀 정 상궁이 한 상궁에게 비전의 책



불자 세상보기

이희재

광주대 철학과 교수

아름다운 원칙

을 전해지면서 '포기하지 말라' '원칙을 지키라' 하는 등의 가르침을 전하는 한 장면은 마치 선사와 회비가 엇갈리는데, 시청자들은 중후함이 전해진다.

최고를 겨루는 공녀들의 경쟁 속에서 드라마는 선악과 희비가 엇갈리는데, 시청자들은 원리원칙의 정당한 절차를 견지하려는 선의의 편과, 권모술수와 비행을 마다하지 않는 악의의 편,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두리뭉실하고 어중간한 이들이 더불어 드라마 속에 몰입하며 감정을 공유해 일약 시청률 50%를 넘는 일종의 신드롬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는 바로 현대 한국

인이 고뇌하고 있는 원칙과 권모술수 그리고 선악의 모순과 분열 가운데 허덕이는 삶의 고뇌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그리고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탈권위주의와 다원주의로 치달고 있다. 그에 따른 병리현상 또한 심각하며, 상호 모순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과 예측불허로 인해 혼란 속에 허덕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이란 다툼 아닌 전통적인 인정과 의리의 따뜻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에 대해 경쟁하고 승부를 겨루는 차갑고 비정한 음모와 권모술수 등의 아비함이 이 시대 안에 공존하는데서 기인할 것이다.

드라마 '대장금'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조선 중종 때 의녀의 성공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최고 권력자 왕이 주인공이 아닌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주인공이 되는 역전현상을 볼 수 있다.

흔히 조선조 유교사회의 특징을 가부장적 남성위주의 사회라고 규정한다면, '대장금'이 보여주는 것은 주어진 신분과 여성의 열악함을 뛰어넘는 인간승리를 그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이거나 적당한 권력자와 야합한 부정부패가 아닌 정당한 원칙이 승리하는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일면도 있다.

지금의 현실은 비록 약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모순된 현실속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 지라도, 한국인의 변함없는 이상은 진정 아름다운 원칙의 편에 있음을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논란

사유재산권, 문화재 모두 소중

박홍석 경기도 문화정책과 문화재 담당 계장

현재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는 현행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해,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건축행위 제한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행 경기도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는 반경 300m 내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와 사유재산권 보호 문제가 충돌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국가와 경기도 지정문화재 모두 문화재보호구역을 반경 200m로 축소할 예정이다. 실제로 남양주시 급곡동 흥릉, 유릉 인근 주민들은 올해 초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려 하자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 도시지역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다른 도(道)에 비해 지역 대부분이 도시화하고 있고, 인구 역시 전국 최대로 그간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건축제한지역 축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8개 광역시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200m, 서울시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이 100m로 지정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제한 범위를 축소해도, 녹지 관리에 국민

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행정을 구현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실시했지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의 의견들이 조금씩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문화재보호조의 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건축행위 제한 기준을 축소하는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와 불교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가 진행 중인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문화재 관계자들은 이를 왜 반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최고공녀 정 상궁이 한 상궁에게 비전의 책을 전해주는 장면은 마치 선사와 회비가 엇갈리는데, 시청자들은 중후함이 전해진다.

최고를 겨루는 공녀들의 경쟁 속에서 드라마는 선악과 희비가 엇갈리는데, 시청자들은 원리원칙의 정당한 절차를 견지하려는 선의의 편과, 권모술수와 비행을 마다하지 않는 악의의 편,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두리뭉실하고 어중간한 이들이 더불어 드라마 속에 몰입하며 감정을 공유해 일약 시청률 50%를 넘는 일종의 신드롬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는 바로 현대 한국인이 고뇌하고 있는 원칙과 권모술수 그리고 선악의 모순과 분열 가운데 허덕이는 삶의 고뇌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그리고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탈권위주의와 다원주의로 치달고 있다. 그에 따른 병리현상 또한 심각하며, 상호 모순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과 예측불허로 인해 혼란 속에 허덕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이란 다툼 아닌 전통적인 인정과 의리의 따뜻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에 대해 경쟁하고 승부를 겨루는 차갑고 비정한 음모와 권모술수 등의 아비함이 이 시대 안에 공존하는데서 기인할 것이다. 드라마 '대장금'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조선 중종 때 의녀의 성공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최고 권력자 왕이 주인공이 아닌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주인공이 되는 역전현상을 볼 수 있다.

흔히 조선조 유교사회의 특징을 가부장적 남성위주의 사회라고 규정한다면, '대장금'이 보여주는 것은 주어진 신분과 여성의 열악함을 뛰어넘는 인간승리를 그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이거나 적당한 권력자와 야합한 부정부패가 아닌 정당한 원칙이 승리하는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일면도 있다.

지금의 현실은 비록 약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모순된 현실속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 지라도, 한국인의 변함없는 이상은 진정 아름다운 원칙의 편에 있음을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300m로 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모두 200m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경기도의 정책은 근시안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축소되면 난개발은 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모순된 현실속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 지라도, 한국인의 변함없는 이상은 진정 아름다운 원칙의 편에 있음을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문화재보호조의 개

'새만금 삼보일배단' 환경상 수상



국내 언론사 전·현직 환경기자들의 모임인 한국 환경기자클럽은 12월 3일 올해의 환경인상 수상자로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은 목사 등 '새만금 삼보일배단' 성직자 4명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를 선정했다. 환경기자클럽은 "유치원 어린이부터 주부와 노인 등 수많은 시민이 삼보일배에 참여했으나, 이들은 삼보일배 수행을 총괄적으로 이끌어 새만금 간척에 따른 환경과 괴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장군속메

"시주하겠다"며 돈 갈취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큰 돈을 시주하겠다고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 해릉사는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12월 2일부터 3일 동안 짚에 찾아와 '짚에 8억여원을 보시하겠다'며 급하게 30여만원을 빌려간 뒤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릉사의 한 스님은 "불사 후원을 명목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런 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공 종도 총회 의결 사항 고

■ 아래 원인

- 1. 중헌 제67조는 총무원장의 4연임은 인정하지 않으며
2. 중헌 제49조 1항 중앙총회의원은 총회의장이 임명 명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총회의장이 부재중인 가운데 중앙총회 소관의 총무원 임원이 임명됨을 알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중헌 제6장 제 23조 1항 및 제 28조를 인용. 전사의 일을 무효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종도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아 래

- 1. 중앙총회 및 각급 중무기관 해산
2. 각급 중무기관의 직인과 계인은 공고 당일부로 무효
3. 비상 대책 위원회 발족 (명단 참조)
4. 대승사상에 입각 종단 화합을 위한 종도 대 서면

■ 비상 상태 대책위원회 명단 (위원은 무순)

- 위 원 장 - 법호(경기) • 부위원장 - 법천(부산)
• 간 사 - 법음(대구) • 총 무 - 원해(서울)
• 위 원 - 법인(마산) 지법(경기) 청원(경기) 덕일(전북) 혜능(충남) 법천(경북) 법상(마산) 범명(서울) 태덕(전북) 성원(서울)

※ 대승종 관련 일체 중무는 흥도사로 문의 요망. 문의전화 02)2234-2198

불기 2547년 11월 29일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도암 성도

재대한불교 종도 연말 지정 기부금 일봉선교종 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

귀의 삼보하옵고 계미년 납일을 맞이하여 종도님들의 존체 청안하시옵고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법인과 종단에서는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와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연말 정기적으로 각 사암에서 신도(불자)들에게 발행하는 연말 지정기부금(보시금) 납입증명서 발행에 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 1) 본 종단에 2003년 11월 현재까지 등록된 각 사암에서는 본 종단의 통일된 양식에 의거 납입증명서를 작성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종단에 2003년 11월 현재까지 미등록된 사암은 본 법인과 종단 규격양식에 의한 발행증명서를 절대 발행할 수 없으므로 필요로 하는 사암은 전국 각 교구 총무원을 경유 총무원에 등록을 필하고 지정기부금(보시금) 납입증명서 발행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본 종단 각 교구 총무원장은 본 종단에 등록된 사암을 파악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별지양식에 의거 발행시암명단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내용은 불교 흥법의 포교 및 범회명칭을 쓰고 보시금 납입일시, 발행시암명칭과 주지성명, 연락처를 명확히 기록할 것.
5) 문의사항 : TEL (02) 998-8161~2 / FAX (02) 998-8384

2003년 12월 10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이사장 김혜운 합장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총무원장 정동봉 합장